

2017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요	01
II. 코트디부아르 경제현황	05
III. 코트디부아르 무역동향	13
IV. 코트디부아르 투자동향	20
V. 현지체류 참고자료	23
VI. 아비장무역관 안내	37





I. 국가개요

1. 일반사항

국명	코트디부아르 (La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Republic of Cote d'Ivoire)
위치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에 북위 5~11도 사이에 위치 - 접경국 : 라이베리아,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가나
면적	322,463km ² (한국의 약 3.2배)
기후	북위 9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열대우림 기후, 북은 사바나 기후 * 건기와 우기, 두 계절 있음(大건기-大우기-小건기-小우기 순서로 바뀜)
주요도시	아비장(Abidjan), 부아케(Bouake), 상페드로(San Pedro), 야무수크로(Yamoussoukro)
인구	2,370만명 (2016년 기준)
언어	공용어 : 프랑스어 * 각 지역에는 부족별 고유언어 사용 (바울레어, 디올라어 등 60여개)
종교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포함) 41.2%, 무슬림 40.2%, 기타 토속 종교
독립일	1960년 8월 7일
정부형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Alassane Dramane Ouattara (2015.11월 재선, 5년 임기)
총리	Amadiy Gon Coulibaly
입법부	양원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2016년에 변경)



2. 코트디부아르 정치 역사

□ 독립 전 배경

- 코트디부아르는 1842년 프랑스와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1893년에 공식적으로 식민지가 됨
- 그랑바쌌(Grand Bassam)이 첫 수도였으나 1898~1990년간 황열병으로 당시 거주 프랑스인 60명 중 45명이 사망하면서 1900년 현재 아비장 외곽도시인 뱅제르빙(Bingerville)로 옮겨지고, 1933년 아비장(Abidjan)으로 수도를 옮김

□ 초대 대통령, 펠릭스 우푸에 부아니

- 코트디부아르가 1960년 8월 7일 독립한 이후, 당시 2대 총리로 지명되었던 펠릭스 우푸에부아니(Felix Houphouet-Boigny)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1961년 프랑스와 상호방위 조약 체결
- 우푸에 부아니 대통령 집권 당시 코트디부아르 민주당(PDCI)이 일당으로 존재하고, 우푸에부아니 대통령은 독립 후 5년 임기인 대통령 선거에서 다섯 번 단독 출마하여 1985년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됨
- 그러나 1980년대 경제사정의 악화로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잇따랐고,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으로부터 다당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압력이 거세어져 1990년에 다당제를 도입함
- 1990년 대선에 인민전선당(FPI) 로랑 바그보(Laurent Gbagbo)가 후보로 출마했으나 우푸에부아니가 당선됨

□ 제2대 대통령, 앙리 코낭 베디에

- 우푸에부아니 대통령은 1993년에 사망하여 당시 국회의장인 앙리 코낭 베디에(Henri Konan Bedie)가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995년까지 집권함
- 베디에 대통령은 1994년 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출마자격을 부모가 둘 다 코트디부아르인이면서 본인의 국적이 코트디부아르인인 자로 제한함으로써 당시 총리였던 알라산 와타라 후보의 출마를 제지함



- 1995년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선거 보이콧한 가운데 베디에가 당선됨
- 대통령 후보의 국적문제로 정치적 대립과 정정 불안이 시작됨

□ 10년의 내전기간

- 1999년 급여 연체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로베르 게이(Robert Guei) 장군이 정권을 장악했으나, 곧 이어 실시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민전선당의 로랑 바그보 후보가 당선됨
- 2000년 대선에서도 후보의 국적 관련 피선거권 조항이 논란이 됐고, 알라산 와타라(Alassane Ouattara) 후보가 또 다시 배제됨
- 2002년 9월 쿠데타가 발생,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내전으로 확대됨
- 2017년 현재 국회의장인 소로 기운(Soro Guillaume)이 반군 지도자였음
- 소로기운은 2000년 바그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나 그 후 알라산 와타라를 지지하면서 반군 대표로 활동함
- 쿠데타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중부 지역 부아케(Bouake) 도시를 중심으로 북부는 반군, 남부는 정부군이 통제함
- 프랑스는 동시에 상호방어조약에 근거하여 프랑스 군대를 코트디부아르에 파견함
- 정정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와 반군 간 정치적 합의가 시도되어, 2003년 프랑스 파리 근교도시 Linas-Marcoussis에서 협약을 맺었으나 실행되지 못함
- 양측은 2004년 가나 아크라에서 무장해제 등 재협상을 하였으나 실행이 지연됨
- 그 후 정부군과 프랑스 군 사이에 상호 공격으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항공부대 폭격 및 맞대응으로 갈등이 증폭됨
- 코트디부아르 최대 기업인 SIFCA의 프랑스인 경영자가 납치 및 실종된 후, 사체로 발견되는 등,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 사이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됨
- 내적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007년 와가두구에서 국가 통합, 탈무장 및 선거 등에 관해 협약을 맺고 바그보 대통령, 소로 기운 및 콩파오레 부르키나 파소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소로 기운이 총리에 임명됨
- 2005년에 실행되지 못한 대선은 여섯 차례에 걸쳐 연기되다가, 결국 2010년 10월에 대선이 실시됨



- 1차 투표 결과 절대 득표자가 없어 11월에 2차 투표 실시
- 1차 투표에서 바그보 후보가 38%, 와타라 후보 32%, 베디에 후보 25.1% 기록. 4주 후 치러진 2차 투표 결과, 와타라 후보 54.1% 바그보 후보 45.9%로 독립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
- 바그보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이의를 제기하여 헌법위원회는 북부 지역 일부 도시의 투표 결과를 부정선거로 판단, 바그보 후보 51.5%, 와타라 후보 48.5% 득표로 발표함으로써 두 대통령이 서로 승자임을 주장함

- UN과 아프리카연합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2011년 1월부터 폭력적 갈등이 시작되어 같은 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속됨

- UN 안보리는 3월 30일 바그보 후보에게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3월 31일부터 아비장을 포위한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짐
- 바그보 대통령은 4월 11일 관저에서 체포되고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로 이송되어 예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 현재까지 국제형사재판소에 1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음



II. 코트디부아르 경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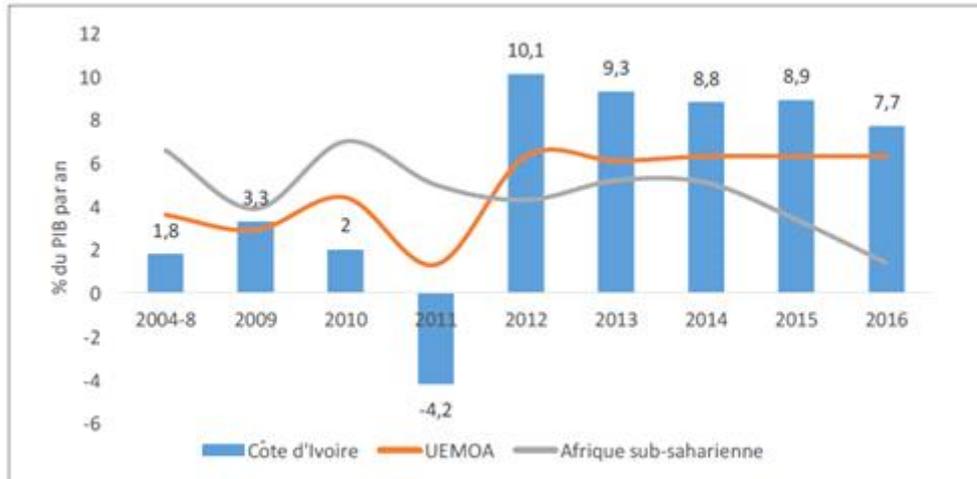
1. 주요 경제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6			
국가일반	인구	명	2,370만			
	면적	km2	32만 2,463			
	한국 대비 면적	배	3.2			
구분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대내경제	인구	백만 명	21.97	22.53	23.11	23.70
	1인당 명목 GDP	달러	1.388	1.473	1.325	1.424
	명목 GDP	십억달러	31,257.4	34,156.1	32,069.1	34,739.8
	실질성장률	%	9.2	8.5	8.4	7.8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0.4	1.2	1.0
	민간소비증가율	%	7.5	9.4	20.1	N/A
	종합주가지수 (BRVM)	기준지표 100	232	258	304	203
	이자율 (상업은행)	기준금리 (%)	9.5~11	10~11	10~11	N/A
	실업률	%	6	5.3	N/A	N/A
	수출실적	백만달러	13,706	14,866	14,415	11,574
	수입실적	백만달러	12,982	13,496	13,463	9,1972
	무역수지	백만달러	814	1,370	1,370	1,315
	재정수지	GDP대비 %	N/A	-2.2	-2.9	-4.0
	외국인투자금액	백만달러	407	439	430	481
	국가채무	GDP대비 %	N/A	44.8	47.8	48.3
	환율(유로에 고정)	1유로 =655.957				

자료원 : Passport Citiesm World Bank, 한국수출입은행, EIU, IMF, BRVM 등

2. 경제 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률



* UEMOA : 서아프리카 경제통합연합체 / Afrique sub-saharienne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내전 종식 이후, 2012년부터 10.1%, 9.3%, 8.8%, 8.9%,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6년 코트디부아르 경제 성장률은 7.7%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내전 종식 이후 기록한 8~9%대 성장률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수치임
- 이 같은 경제성장폭 감소의 요인으로는 국제시장 상황 악화를 들 수 있음
 - 코트디부아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4~5백만 명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카카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제에 타격을 입음
 -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특성 상,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한 것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함
-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2017년 초에 발생한 군인봉기 및 공무원파업이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정부는 재정조정을 감행하였고, 기존 투자지출 및 빈곤층지원을 삭감함



- 민간 투자자들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해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 발생

□ 고용

- 코트디부아르 실업률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정부 발표와 현실 체감 노동시장 조건은 확연하게 다름
- 2014년 정부당국은 5.3%라고 발표하였으나, 잠재노동력과 최저임금 이하 취업자 모두를 반영했을 때 실업률은 65.5%까지 달함
- 고용진흥청은 최소 3년 이상 실업 인구비율이 48%에 달한다고 주장함

□ 금리

- 코트디부아르의 통화는 프랑세과(Franc CFA)이며 통화기호는 XOF임
- 코트디부아르는 서부아프리카 경제화폐 연맹(WAEMU, West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회원국으로서 WAEMU의 중앙은행인 CBWAS(Central Bank of West African States : 프랑스어 명칭 BCEAO)의 감독 하에 통화량 등을 조정함
- WAEMU 회원국 :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토고, 베냉, 기니비사우 (8개국)
- WAEMU 8개국 내에서 코트디부아르의 경제력은 약 40%를 차지함
- BCEAO는 회원국 내 경제 화폐정책 수단으로서 공개시장운영과 재할인율을 정하여 공개시장운영 시 최저 적용률이 2.5%, BCEAO 및 회원국 내 시중은행과의 재할인 기준금리가 3.5%로 고정됨
- 각 회원국의 시중은행은 자신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수신금리 및 여신금리를 적용
 - 여신 기준금리는 약 9.5%~11%이며, 다수가 10.5%~10.75%를 적용함
 -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8% 내외이며 일반 개인 대상의 여신금리는 다수가 12~13%임



□ 환율

- WAEMU 회원국, 즉 프랑세파 (Franc CFA)를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 환율은 유로에 고정되어 있음
 - 1유로는 655.96 Franc CFA이며, 고정환율제는 WAEMU가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화폐공동체를 만들었던 1959년부터 적용되었고, 유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프랑스 프랑에 고정되어 있었음

□ 소비자 물가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연도	2013	2014	2015	2016
물가상승률	2.6	0.5	1.2	1.0

- 정부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소비자 체감 물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는 일반 가계 물가와 수입 상품 중심의 물가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 빈곤률이 약 50%인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을 포함한 소수 부유층을 위한 수입 물가와 다수의 빈곤층인 대중 소비 물가가 다르게 존재함
- 일반 가계 물가는 상업부가 매주 주요 생필품 바스켓 물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쌀, 계란, 말린 생선, 양파, 토마토, 조미료, 식용유, 바나나 플랜틴, 양, 조리용 부탄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가 가격표시제를 의무로 적용하여 가격 상승 억제를 시도하나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는 편임



- 반면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품 위주의 물가는 환율, 수요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되나 달러 강세와 외국인 유입 인구의 증가로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비장은 세계에서 물가가 높은 50대 도시에 속함
- 주택 임대료는 2015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임직원의 아비장 복귀로 급상승함
 -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임대료는 매우 높은 수준임
 - Numbeo, Expatistan 등과 같은 세계 도시별 물가수준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는 아비장에서 월베드룸의 임대료를 350~900 USD (도시외곽~시내중심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음
- 유류 가격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휘발유 1리터 당 1 USD로 국제유가 시세하락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하락되어옴. 경유 가격도 1리터 당 1 USD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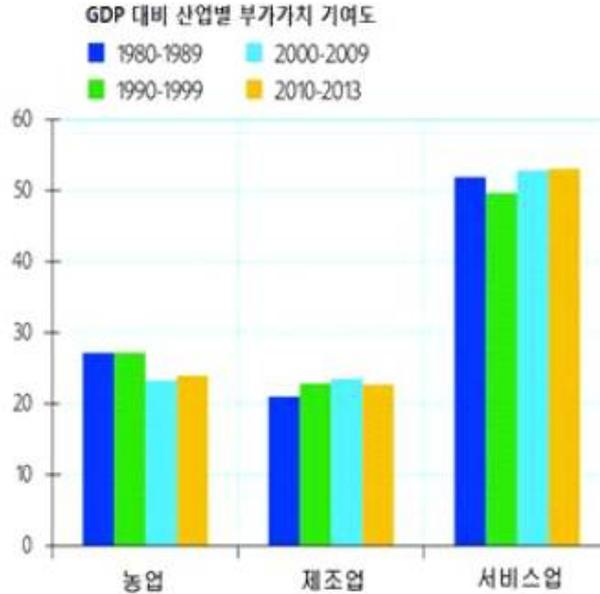
□ 산업구조

- 코트디부아르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로서 1차 산업이 주도적이며, 전체 노동인구 중 6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주요 1차 생산품은 코코아, 커피, 캐슈넛, 면화, 천연고무, 목재, 바나나, 파인애플 등임
- 코트디부아르는 1980년 이후 부문 간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난 30여 년 간 산업화를 이루지 못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 것을 의미함



□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 (1세파 = 2원)
식품류	쌀 1kg	1,000 ~ 3,800 원
	계란 1판 (30개)	4,400 ~ 6,000 원
	쇠고기 등심 1kg	14,000 원
	우유 1L	2,000 원
	식용유 1L	1,600 원
	생수 1.5L 6병	4,000 원
	맥주	1,600 원
	담배 1갑	1,600 원
	햄버거 (버거킹 와퍼 세트)	10,000 원
의료비	의료보험료	사설 의료보험료는 지나치게 편차가 커서 유효한 값이 없음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없이 말라리아 진료를 받을 때)	24,000원, 검사료 30,000원
	병원진료비 (의료보험이 있고 말라리아 진료를 받을 때)	사설 의료보험 커버 비율에 따르므로 유효값이 없음
차량	중형승용차 (신차)	4,000 만원
	무연휘발유 1L	1,150 원
	경유 1L	1,150 원
통신	유선전화 (1분)	200 원
	휴대전화 (1분)	200 원
	국제전화 (1분, 한국으로 걸 때)	1,000 원
	인터넷 월 사용료	7만 ~ 9만 원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00m ² , 2 rooms, unfurnished)	90만 ~ 200만 원
교육	미국 국제학교	학년별로 다르나, 초등학생 기준으로 등록금 포함 매년 15,000 달러 (입학 시 기부금 별도)
	프랑스 국제학교	학년별 교육비 수준이 다르나 고등학생 저학년 기준 학비 600만원, 부대비용 220만원 정도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더블룸, 12월 주말 기준)	45만 원
	일급호텔 (4성급) 1박 정상요금 (더블룸, 12월 주말 기준)	35만 원
	중급호텔, 레지던스 호텔	10만 ~ 15만원
임금	대졸 사무직 평균	40만 원
	생산직 평균	17만 ~ 22만 원
	매니저급 급여	50만 ~ 70만 원
	주당 법정 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4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주5일 근무제 여부	주 5일제 실시
	연간 공휴일 수	1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만 원



- 위 그래프에 의하면, 농업은 전체 고용의 45%를 차지하며, 농업 부가가치 창출이 GDP에 기여한 부분은 약 24%에 머무름. 제조업은 전체 고용의 12.5%에 불과하며 GDP의 약 23%를 기여함. 1인 고용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높지만 제조업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여 고용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서비스 산업은 전체 고용의 44%이며 GDP대비 부가가치 창출은 약 53%임
- 코트디부아르의 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 산업으로 몰린 경향이 강함. 따라서 서비스 산업 구조는 매우 열악하여 1인 고용 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 집중되어 있음
- 제조업은 주로 1차 농산물 가공에 집중되어 있음
 - 코코아 원두를 가공한 코코아 버터, 코코아 파우더, 캐슈넛 분리 가공, 팜나무에서 팜유 추출 가공, 천연고무를 1차 가공한 라텍스, 목재 가공 등 일차적인 가공 제조수준에 머물러 있음



- 대부분의 대기업은 다각화보다는 특화를 추구하는 편이며 한국과 달리 1차 산품의 경우 원료 공급원이 지역적으로 쉽게 확장되므로 오히려 서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추구하는 경향임
- 제조업의 산업 분포는 다양하지 않고 1차 산품 가공에 집중된 편이며 그 외 제조업 분야는 시장의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건설, 건축 자재, 기초 화학 제품 분야임
- 제조업체 분포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음. 대규모 국민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요 농산물마다 외국인 기업이 가공 산업을 이끌고 있음
 - 코코아의 경우, 프랑스 기업인 세무아(CeMoi), 캐슈넛의 경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올람(Olam) 등이 제조업 분야의 주요 기업임
- 제조 산업의 기반이 약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서비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소비 제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가공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이를 유통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음
-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행정기능과 고소득자를 위한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보험 서비스 분야를 보면, 제조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조물 책임보험, 종합화재보험 또는 해상운송보험 관련 수요보다는 개인 승용차 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높은 의료 진료비를 커버하기 위한 의료보험 등이 발달되어 있음
 - 제조업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수익성을 중심으로 투자 심사 기능이 강화된 대출보다는 고율의 소규모 단기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이 많음
- 따라서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볼 때 민간산업 부문이 경제를 주도하기보다는 정부 주도하의 인프라 사업이 많고, 일반 시장은 고소득자들의 소비활동이 주도함
 - 정치불안이 일어날 경우,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이 정체되면서 경제가 경직됨



Ⅲ. 코트디부아르 무역 동향

1. 무역 동향

□ 수출입 동향

- 코트디부아르는 원유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등을 수입함
 - 코코아, 캐슈넛, 커피, 천연고무, 팜유, 약간의 석유,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음. 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하면 수출입 경향은 독립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수입 또한 경제에 필요한 금속, 기계, 자동차, 화학원료 및 제품 등으로 코트디부아르 국내 소비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기술력 차이에 따르는 선진국에 대한 의존 관계를 보여줌. 시장인구는 많으나 경제력 규모는 매우 작고, 역동성은 있으나 안정성이 낮아 향후 전망은 현재 구조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음
-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규모가 작아도 구조적으로는 서아프리카 경제 지도국으로서 지역 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한국과 코트디부아르간의 교역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협력 강화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는 한국의 잠재적인 투자 및 교역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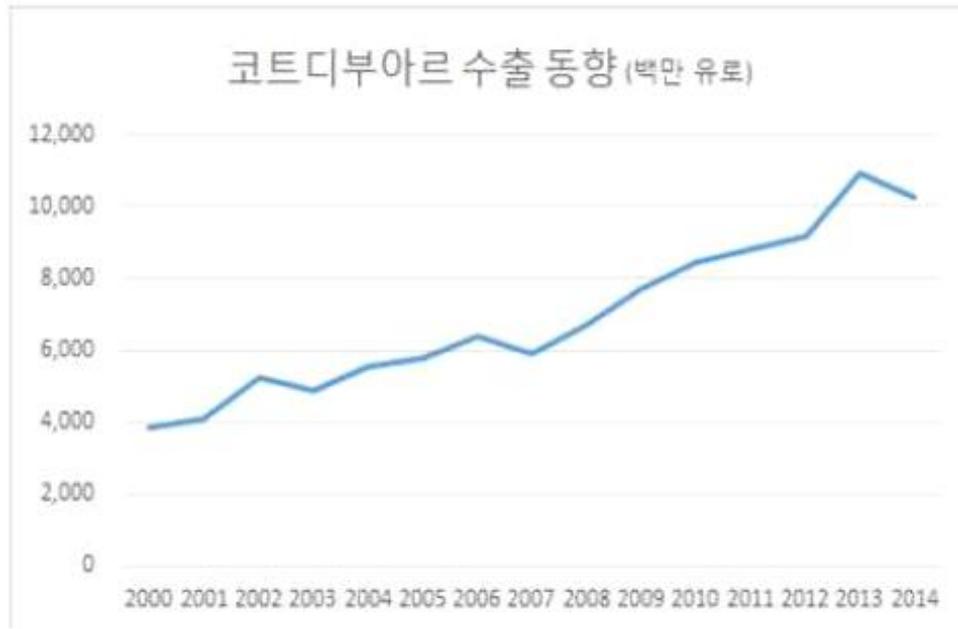


- 코트디부아르의 상품 수지는 항상 흑자인 반면 서비스 수지는 반대로 늘 적자 상태로 지속됨
- 상품 수지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농산품의 국제 시세임
 - 가격이 하락할 때 경상 수지가 악화됨
- 상품 수지는 수출입에 따른 관세 수입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음
- 현재 가장 중요한 동향은 코코아, 캐슈넛, 천연고무 등의 생산을 늘려 조세 수입을 확충하는 것임
 - 하지만 최근 하락한 국제 카카오가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조세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수출 동향

- 아래 그래프는 코트디부아르의 금액 기준 수출 동향을 보여줌. 지속적인 향상으로 2000년~2010년 사이 두 배로 성장함



- 코트디부아르 수출 파트너는 유럽, 아프리카,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짐. 그 중 가장 중요한 곳은 유럽이며, 가장 중요한 코코아 및 농산품의 소비자들이 유럽 및 미국에 집중되어 있음
- 아래 표는 코트디부아르의 총 수출액에서 국가 및 지역별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연도	유럽	프랑스	아프리카	WAEMU	중국
2000	49	15	32	0.10	0.28
2001	51	14	31	0.16	0.15
2002	54	12	31	0.23	0.15
2003	59	19	25	1.13	0.23
2004	58	22	26	0.84	0.15
2005	44	18	30	1.13	0.11
2006	50	18	29	1.32	0.10
2007	54	20	29	0.47	0.09
2008	49	14	32	0.46	0.08
2009	49	10	30	0.51	0.05
2010	43	7	36	0.71	0.04
2011	38	6	35	0.95	0.02
2012	38	5	38	0.92	0.08
2013	35	6	46	1.05	0.04
2014	39	6	34	1.05	0.06
2015	40	6	30	1.22	0.08

- 위 표에 따르면, 수출에 있어 유럽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의 비중도 줄어듦
 - 프랑스의 비중은 1971년까지 최소 30% 이상이었고, 1980년까지 20%대로 떨어졌다가 2009년까지 10%로 떨어짐

- 공동화폐를 쓰는 서아프리카경제화폐연맹(WAEMU)에 대한 수출 비중은 매우 낮음.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WAEMU 회원 국가들의 경제력이 매우 낮기 때문임
 - 하지만 향후 서아프리카 지역 내에서의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경우, WAEMU 비중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한국은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서아프리카 시장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입 동향

연도	유럽	아프리카	WAEMU	중국
2000	44	2	6	6
2001	43	2	6	4
2002	44	2	5	6
2003	55	2	6	3
2004	63	1	5	4
2005	62	2	7	3
2006	60	2	10	4
2007	56	4	16	6
2008	42	6	22	8
2009	43	5	21	6
2010	35	4	19	6
2011	35	10	20	6
2012	38	7	20	5
2013	40	6	41	6
2014	39	5	28	6

- 유럽에 대한 수출과 수입 의존도는 비슷한 규모이며 대략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그에 비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이나 서아프리카 지역 내 수입은 수출과 비대칭적 현상을 보임. 수출과 수입의 비대칭은 중국의 경우 확연하게 드러나 보임
- 위 표로부터 몇 가지 현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유럽과의 교역은 수출입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안정되어 있으나 대체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프랑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단일 국가로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였으나 그 비중이 현재로서는 매우 하락하여 다소 다변화가 진행되었음
 - 아프리카 역내 무역은 수출은 늘고 있으나 수입은 크지 않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코트디부아르가 공급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WAEMU 지역 내 공동체에서는 수입을 하는 편이며 수출 시장은 크지 않아 지역 내 시장에 대해서는 가공업 또는 소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중국(일본 및 한국 포함)에 대해서는 많은 수입을 하고 있으나 수출은 극히 미미하여 무역 불균형이 심각함

2. 한-코 무역 동향

□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교역

(단위 : 천 미불)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218,666	117,038	128,668
수입	7,615	14,469	9,659
교역량	226,281	131,507	138,327
무역수지	211,051	102,569	119,009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코트디부아르 관세청

-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교역량은 2014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 하락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감소했음. 2016년에 다시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
- 무역수지는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



한국의 대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 미불, %)

HS Code	품목명	2016년		2017년(상반기)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5,722	-35.9	8,987	-21.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554	-30.1	15,141	29.7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3,326	-43.7	9,289	13.8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3,674	-38.6	10,279	215
29	유기화학품	6,668	-2.3	6,590	93.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궤도차량 관련 부품, 플라스틱 등이 차지하고 있음. 궤도차량 관련 부품의 경우 수출이 주춤하여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플라스틱의 경우는 2017년 상반기에 이미 2016년 수출액에 거의 근접하며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 외에도 2016년 대비 2017년 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의 대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 미불, %)

HS Code	품목명	2016년		2017년(상반기)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0,517	-8.8	1,969	-60.2
74	동과 그 제품	2,978	97	1,841	41.2
18	카카오, 카카오 조제품	547	30.3	152	-50.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 코트디부아르 수입 품목은 커피와 동, 카카오 정도 외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없음. 2016~17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동을 제외하고 모두 큰 폭으로 수입량이 감소



IV. 코트디부아르 투자동향

1. 투자 환경

□ 전략적 거점 국가

- 코트디부아르는 시장이 발달해 있어 투자의 기회가 많은 편임
- 첫째, 코트디부아르 국내시장 규모는 작지만 비교적 발달된 국가임. 서아프리카 경제화폐연맹(WAEMU) 8개국의 화폐 총량의 40% 이상이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는 것은 지역 내 경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줌
- 둘째,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내의 시장을 고려하면 시장이 더 커짐. 코트디부아르는 인접 국가들인 가나,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기니(코나크리), 라이베리아 등의 중앙시장 역할을 함.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항만이 없는 내륙국으로 코트디부아르가 항구 역할을 하며, 상품 유통의 중심이기도 함
- 셋째, 산업의 스펙트럼이 비교적 넓음.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철강 및 기계, 화학, 석유, 농식품 가공, 농수산업, 토목 건설 등이 활성화되어 범위가 넓은 편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조달되지 않는 못하더라도 100% 수입에 의존만 하는 것도 아님
- 기술이전에 인색한 여타 국가와는 달리 한국이 시장개척과 함께 기술 이전 및 고용훈련을 병행한다면 코트디부아르에 진출기회는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사업여건

- World Bank가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지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중임
- 물론 체감하는 것과는 다소간 괴리가 있음에 유의는 해야 함

- 사업 환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호적인 여건과 비우호적인 여건이 있다면 대체로 우호적인 여건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 고소득층과 외국인들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크기가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국민성이 유순하고 친절할 점을 들 수 있음
- 비우호적인 여건은 언어(프랑스어) 적응이 쉽지 않고, 세금을 비롯한 법 제도 등이 프랑스식 제도와 유사하여 우리와 친숙한 편은 아님.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하겠지만 업무의 절차적 합리성이 그다지 존중되지 않는 문화는 다소 적응하는 데에 혼돈스러움
- 가장 비우호적인 여건은 치안 문제임. 내전 종식 이후, 군인 폭동 및 공무원 파업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치적 불안요소가 야기된 상태. 더욱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쿠데타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신 투자법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2년 기존 투자법을 개정하여 신 투자법을 제정함
 - 지역, 투자금액 등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에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는 직접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투자법 외에도 광산법 등 산업 분야별 관련법을 개정함
 - 하지만 여러 방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준조세 집행과 세관에서의 비관세 장벽 등 행정의 투명성 개선은 체감 수준에서는 큰 진전이 없음

□ 투자 유치기관

- 코트디부아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는 단일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짐. 투자청(CEPICI; Centre de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 en Cote d'Ivoire; 코트디부아르 투자촉진센터)이 그 단일창구이며, 이곳을 통해 기업설립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투자 장려 분야

- 신 투자법이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음
 - 1차 산품 가공
 - 농업경영과 식품안전
 - 공공 인프라
 - 호텔관광
 - 공예
 - 국민 주택 개발
 - 녹색산업

-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분야는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제약이 많이 따르거나 국내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분야는 삼림개발(목재), 광산개발(금, 다이아몬드)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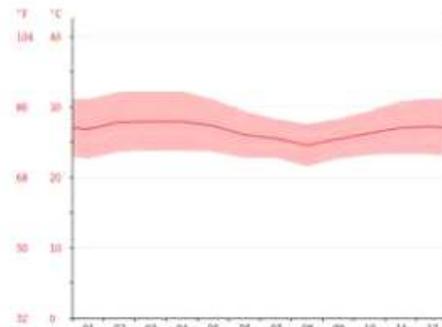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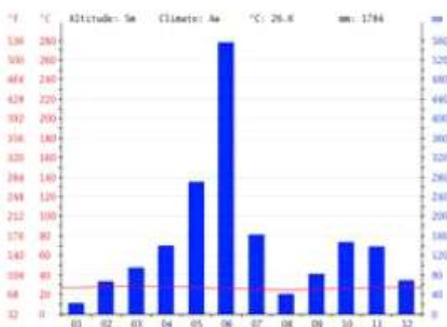


V. 현지체류 참고자료

1. 출국 전 준비

□ 기후

- 기후는 열대기후이며 크게 건조하면서 더운 계절(건기)과 비가 오면서 조금 덜 더운 계절(우기)로 나누어짐. 연중 온도는 아비장이 최저 25도 최고 35도 정도이지만, 북부 내륙으로 올라가면 최저 온도 20, 최고 온도 40도 까지 올라감
 - 아비장은 연중 항상 습도가 높지만 북부 내륙은 건조해서 햇볕을 가리고 바람이 불면 시원하게 느껴짐
- 시차는 9시간이며 썸머타임이 없음. 영국 표준시와 동일한 시간대로, 서울이 아비장보다 9시간 빠름
-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음
-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아비장 기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음



□ 근무시간

- 최근 새로 개정된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출근시간은 오전 7시 30분 퇴근시간은 오후 4시 30분임



□ 국민성

- 국민성은 대체로 유순한 편이며 낙관적임. 오전 일찍 움직이며 부지런한 스타일이나 실업률이 높아 일이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음. 게으르다고 스스로 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후나 국민성의 문제라기 보다 일자리가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큼
-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적응하고 감수하는 것을 택하는 편임

□ 환전 및 신용카드 사용

- 프랑세파와 유로의 환율은 1유로 = 656 세파
 - 유로화와 고정 환율이므로 수수료가 거의 없이 환전 가능하나 달러로는 환전 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함
- 신용카드는 대형 쇼핑몰과 일부 대형 식당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임
 - 유로화를 현지에서 프랑세파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함. 프랑세파는 서아프리카지역 외에선 사용할 수 없음

2. 출입국 및 비자제도

□ 비자

-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함
-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위치 및 연락처 :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31번지 가건빌딩 (140-894)
 - 전화번호 : +82-2-3785-0561
-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영사업무 시간 :



- 비자신청 : 9:30 ~11:30 (월~금) *대사관 휴관일 제외
- 비자수령 : 14:00 ~ 16:00 (월~금) *대사관 휴관일 제외
- 혹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e-visa 신청도 가능
 - e-visa 신청 사이트 : <https://snedai.com/e-visa/>
 - 신청 후 48시간 이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바로 공항에서 발급해줌
- 코트디부아르 입국 심사 시에 황열병 예방백신 접종카드를 제출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아비장 공항에서 다시 접종해야 함
- 만약 신체상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경우,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함
 -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환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비자연장

- 체류 기간 중에 비자를 연장하려면 여권과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플라토 소재 내무치안국 사무실 (DST;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에 신청할 수 있음

□ 체류

-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비자 만료와 함께 신분등록사무소(ONI : Office national d'identification)로 가서 생체정보 기반 거주증(Carte de résident biométrique)을 신청해야 함
- 2017년 8월, 기존 임시체류증(Titre provisoire de séjour) 발급 중단하고 생체정보 기반 거주증 신청을 의무화함
 - 생체정보 기반 거주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여권 사본과 비자 및 입국 도장이 있는 면의 사본
 - 6개월 미만의 거주 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 재직증명 (또는 경우에 따라 종교인, 학생, 사업자등록 등의 증명)
 - 사진 2장
- 유효기간은 5년이며 발급수수료는 30만 프랑세파임

□ 출입국 수속 및 세관 신고

- 코트디부아르 입국 시 짐을 엑스레이 통과해야하며, 음식물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세관원과 음식물 검역 및 관세에 대해 해결해야함. 개인 용도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이 어려울 때가 있으니 유의해야함
 - 커피를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음
- 한국인이 코트디부아르를 여행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경우에 코트디부아르 입국 시 1백만 프랑세파를 넘는 외화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에는 50만 프랑세파를 넘는 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없음
 - 그 이상의 금액은 여행자 수표 등으로 바꾸어 나가야함
- 코트디부아르 출국 시에도 물품 검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함. 누군가가 상아 제품을 사가도록 권유할 때 단호히 거절해야함. 관세법 위반이 기도 하지만 출국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됨

3.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호텔소개

- 코트디부아르, 특히 아비장의 경우 가격대비 호텔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호텔도 많이 부족하여 연중 예약이 어려움. 아래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직접 예약하거나 인터넷 호텔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함. 한인이 운영하는 민박을 활용할 경우 식사 및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호텔명	전화번호/팩스 (국가번호 +225)	홈페이지	정상 가격 (싱글, US\$)	위치
Hotel Ivoire	T 22482626	http://www.sofitel.com/fr/hotel-8844-sofitel-abidjan-hotel-ivoire/index.shtml	400 ~ 500	코코디
Golf Hotel	T 22437400 / F 22430544	http://hedengolfhotel.com/	250 ~ 350	리비에라
Hotel Tiama	T 20313333 / F 20313131	http://www.hotel.tiama.ci/	300 ~ 400	플라토
Hotel Pullman	T 20302020 / F 20212028	http://www.pullmanhotels.com/fr/hotel-1146-pullman-abidjan/index.shtml	250 ~ 350	플라토
Azalai Hotel	T 21222555	www.azalahotels.com/azalai-hotel-abidjan	200 ~ 300	막꼬리
Novotel	T 20318000 / F 20318020	http://www.novotel.com/fr/hotel-0481-novotel-abidjan/index.shtml	200 ~ 300	플라토
Radisson Blu	T 21222000	https://www.radissonblu.com/en/hotel-abidjan	250 ~ 350	공항
Hotel Onomo	T 21212191	http://www.onomohotel.com/-ONOMO-Abidjan-Airport-.html	150 ~ 250	공항
Hotel Ivotel	T 20256666	http://www.ivotel.com/	150 ~ 200	플라토
Hotel Ibis	T 20301600 / F 20217875	http://www.ibis.com/gb/hotel-0732-ibis-abidjan-plateau/index.shtml	100 ~ 150	플라토
Residence Bertille	T 22413915 / F 22414002	http://www.residencebertille.com/	100	발롱

○ 그 외의 주거로는 한인 민박 또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음

- 만나민박

- 한식당과 겸한 민박으로 식사 및 빨래 서비스 제공
- 전화 : +225 0255 0616
- 이메일 : yeongtae Choi@gmail.com

- Seaworld 민박

- 전화 : +225 0714 6565, +225 2124 7349



□ 주요 식당 소개

○ 아비장이 과거에 Little Paris 라고 불릴 정도로 변화했던 적이 있음. 그런 의미에서 서양식 식당이 많이 발달해 있음. 서양 식당은 행정관청이 집중되어 있는 플라토 혹은 상가지역인 Zone 4에 많고, 그 외에는 대체로 분산되어 있음. 양식당 외에는 레바논계, 베트남계 식당 등이 있음

○ 한식당 및 한국인 운영 일식당도 운영 중

이름	위치	전화번호	가격대 (메뉴 평균, US\$)	비고
Le Grand Large	Zone 4	21242113	100	프랑스식
La Taverne Romaine	플라토	20218951	80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Montparnasse	Zone 4	2124088	70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Chez Georges	플라토	20321084	50	프랑스식
Aboussouan	트레시빌	21241309	30	코트디부아르식
Kajazoma	2 Plateaux	22417862	30	코트디부아르식
Chri's	Zone 4	21258369	20	이탈리아식
Pagode	Zone 4	21356271	20	베트남식
Nuit de Saigon	발롱	22414044	20	베트남식
Beijing	Zone 4	21253757	20	중국식
Norima	발롱	22510314	15	미국식
Marouche	Zone 4	21255214	15	레바논식
Pasta e Pizza	플라토	22445779	15	이탈리아식

□ 통역정보

○ 한국어-프랑스어 통역 요원은 구하기 어려움. 전문 통역은 한국에서 동반해 오는 것이 좋으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단점임. 현실적인 대안은 한인 교민 중에서 통역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나 이것 역시 쉽지 않음



- 영어-불어 통역은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KOTRA 아비장 무역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가. 취항정보

□ 주요 노선 및 항공요금

- 서울과 아비장을 잇는 노선은 두바이 경유, 이스탄불 경유, 아디스아바바 경유, 파리 경유 노선이 있음. 시기에 따라 각 노선별 요금차이가 천차만 별이며, 파리 경유 노선이 가장 고가임
- 파리 경유 노선도 서울-파리, 파리-아비장 노선의 티켓을 별도로 구매할 경우 티켓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인터넷 항공권 가격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예약이 가능함

□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 대중교통은 미터기 택시 밖에 없음. 시내 중심으로 올 때 낮 시간에는 5000 프랑세파 (7.6 유로)면 흥정됨. 미터기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Uber 택시와 같은 택시(Africab)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미리 앱을 설치하고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어야함
- 택시는 유로나 달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전이 최소한 택시요금은 되어 있어야함
- 택시 기사가 글을 못 읽는 경우가 많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서 최소한 호텔이름과 구역 이름을 알려줘야 함

- 코트디부아르의 통화인 프랑세파(FCFA)는 유로와 656:1 고정 환율이므로 아비장으로 여행을 할 때에는 달러보다 유로를 가져오는 것이 유리함. 달러환율은 변동하는데다가 수수료도 높지만, 유로화는 매우 낮은 수수료로 쉽게 교환이 가능함

나. 교통 및 통신여건

□ 대중교통

- 아비장의 대중교통은 택시, 합승택시, 미니버스, 합승버스, 버스 등으로 구분됨
- 택시는 정식 명칭이 미터기 택시(Taxi compteur)이며 어느 곳이든지 운행이 가능함. 원래 취지는 미터기 요금으로 받는 것이지만 도로 정체가 심해 미터기 요금이 비현실적이어서 타기 전에 요금을 흥정하고 타야함.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8유로 정도 요금이 적합함. 실내가 다소 불결한 편이어서 실제 이용은 불편한 편
- 합승택시는 흔히 워로워로(Woroworo)라고 부르는데 아비장의 각 구역(commune) 내에서 일정한 노선만 운행함. 요금이 매우 저렴하지만(0.15~0.75유로) 한 택시에 4명이 같이 타고 가면서 언제든지 내리고 타기 때문에 불편함. 실내는 매우 불결한 편이고 합승이 가능한 택시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음
- 미니버스는 최근 도입된 버스로서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됨. 요금은 0.75 유로이며 에어컨과 차내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됨. 현지인 기준에서는 요금이 비싼 편이라 자리도 여유 있음
- 합승버스는 흔히 바카(Gbaka)라고 부르는 것으로 장거리 구간을 저렴하게 가는 교통수단임. 요금은 0.15 ~ 0.4 유로 수준이나 난폭한 운전 및 불결한 실내 환경으로 외국인은 이용하지 않는 편임



- 최근 도입된 호출형 택시(Africab)는 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됨. 현재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인 Uber 택시와 유사함.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요금이 제시되고 승인하면 택시가 오는 방식임. 일반 미터기 택시 요금의 두 배 정도임
- 2017년 11월 27일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Ivoire taxi는 전자결제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주행거리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음. 예약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함. 최근에 도입되어서 내부는 매우 청결하나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임

□ 통신

- 2017년 현재 아비장에서의 통신 사정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좋아졌다고는 하나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음. 과거 내전 기간 동안에 많은 기간 통신망이 파손되어 회복되지 않은 곳이 많지만 사설 이동통신망은 꾸준히 개선되었음
- Orange Telecom, MTN, Moov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쉽게 전화 USIM카드를 구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이용하던 휴대폰에 그대로 장착하여 사용 가능함. 다만 최근 개통된 번호들은 국제전화 수신 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여가 여건

-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여가를 보낼 만한 공간은 외식하는 정도에 머무는 수준임. 문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저녁 시간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 그러나 가끔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하며, 레게음악과 같은 현대적인 음악을 공연하는 bar도 있음
- 그러나 유의할 점은 아비장은 보통 저녁 9시 이후에는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고, 자동차로만 움직이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



전은 그 자체로의 문제보다는 운전자가 외국인이고 음주상태일 때, 특히 프랑스어 구사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악용한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절대 자제해야함

- 주말에는 주변 해변 도시, 예를 들어 그랑바쌌(Grand Bassam)이나 아씨니(Assini) 등 휴양지에 가면 대서양(기니만)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주변에 호텔도 발달되어 있어 1박2일 휴식에 적합함. 교통에 걸리는 시간은 아비장 시내에서 그랑바쌌까지는 1시간, 아씨니는 2시간 소요됨
- 그 외의 곳으로는 아비장의 외곽인 작크빌(Jacquesville), 코트디부아르 행정 수도인 야무수크로(Yamoussoukro)의 대성당, 그랑라후(Grand Lahou) 등이 가볼만함

다. 기타 생활정보

골프장

- 코코디 구의 리비에라골프에 있는 골프장이 유명하며 많은 골퍼들이 이곳에서 골프를 즐김. 참고로 우푸에 부아니 코트디부아르 초대 대통령이 이곳의 이름을 리비에라 골프(Riviera Golf)라고 명명하고 건물들의 이름도 골프와 관계된 이름을 붙였다고 함

영화관

- 소코세(Sococe) 쇼핑몰과 프리마(Prima) 쇼핑몰, 이부아르 호텔 안에 Majestic Cinema 영화관이 있음

미술관

- 갤러리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항상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코코디 구에 Donwahi 미술관, 독일문화원 옆의 Gallery Guirandou 등이 있음



□ 동물원

- 아비장 시 동물원이 1개소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수가 방문을 권할만한 수준은 아님
- 코트디부아르는 서부의 타이(Tai) 국립공원이 야생 침팬지의 광범한 자연 서식지임. 이곳으로 가려면 국립공원 사무실에 호텔을 먼저 예약해야함

□ 식물원

- 아비장 도심 한 가운데 국립공원이 있고 식물원으로 조성된 곳이 방코(BANCO) 국립공원이며, 과거 식민지 시대에 조성된 곳으로 학생들을 위한 숲 학교(Ecole de foret)도 있음. 한 가운데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도 있지만 총기를 소지한 범죄자의 출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혼자 방문해서는 안 됨
- 아비장 근교 도시로 벵제르빌(Bingerville)에는 넓은 식물원이 있음. 남아공의 크리스텐보쉬 식물원 같은 정교하면서 화훼 중심의 식물원은 아님. 열대 식물들을 모아 놓은 곳으로 의도적으로 조성된 곳이며, 산책, 운동, 피크닉 모두 가능함

□ 주요 쇼핑센터

- CARREFOUR, CAP SUD, CAP NORD, HAYAT 등 대형 슈퍼마켓이 시내에 위치하여 각종 식품과 농산품, 공산품 등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은 없음

□ 코트디부아르 특산품

- 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흔히 까바(Caba)라고 불림. 흑단으로 깎은 작은 코끼리 가족이나 동물 모양의 열쇠고리, 전통 무늬의 천으로 만든 악세사리 등이 많이 팔림. 다만 코트디부아르 국외로 반출 시 국립박물관에 소재한 문화재청에서 반출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하며, 반출 허가가 없을 시 공항에서 압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코트디부아르의 또 다른 특산품은 옷감임. 무늬와 색상이 화려하여 시도할 만하며 옷을 지어가는 것도 가능한데 대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 그밖에 노화방지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링가 차, 달팽이 진액 비누, 카카오가루, 커피 등이 특산품으로 인기가 있음

□ 출장 지양 기간

- 라마단
 - 라마단 기간 중에는 특히 오후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여름휴가 기간
 - 여름휴가는 아이들의 방학, 유럽의 휴가철 등과 겹쳐 6월말에서 8월말이 휴가 기간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출장을 오려면 사전에 약속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국무회의도 휴가 기간에는 쉬므로 장관급 인사 방문은 미리 확인해야함
- 연말연시
 - 연말연시 기간에는 크리스마스 방학과 연말연시가 겹쳐 분주한 때이므로 업무 분위기가 다소간 풀어져 있음
- 공휴일
 - 코트디부아르의 공휴일은 국경일, 종교축일, 기타 지정 휴일 등으로 나누어짐
 - 국경일은 독립기념일 (8월 7일)과 노동절(5월 1일)임
 - 종교축일 휴일은 부활절 후 월요일, 예수승천일, 성령강림절, 성탄절, 라마단축일, 타바스키, 성모승천일(8월 15일), 초생월야(La nuit de destin), 만성절, 마호메트탄 생일의 익일 등임
 - 기타 지정 휴일은 신년(1월 1일), 평화의 날(11월 15일), 우푸에부아니 초대대통령 기일(12월 7일)임
 - 그 외의 추가적인 휴일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컵에서 우승한 날의 다음 날은 통상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이 됨
 - 국경일과 노동절이 만약 일요일이 되면 그 다음날이 쉬는 날이 됨



전기규격

- 전기 규격은 220볼트이며 콘센트는 유럽형과 동일함

응급상황

- 응급상황 발생 시, 또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즉시 연락 하는 것이 좋음
 - 긴급 전화 : (화재) 180 또는 07811818, (의료 응급) 185 또는 22445353, (경찰) 110, 111, 170, (코코디 대학병원) 22481000, (한국대사관) 22486701

식수

-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를 음용하는 것이 좋음. 수도물의 수질은 양호하나 수도관의 관리가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음

여권소지

- 여권은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 비상 시, 현지 경찰 검문 등에 대비하여 항상 지참하는 것이 필요함

간단한 현지어(프랑스어)

- 사람을 부를 때(남/여)
 - 쥘 부 뵘레 무슈/마담 (S' il vous plaît Monsieur/Madame)
- 값이 얼마죠?
 - 쥘 콩비앵 ? (C' eset combien ?)
- 공항까지 (택시 요금이) 얼마죠 ?
 - 쥘 콩비앵 쥐스까 라에로포르 ? (C' est combien jusqu' à l' aéroport?)



- 너무 비싸요
- 쎄 트로 세르 (C' est trop cher)

- 한 개 주세요
- 도네 무와 앵 쎄 부 빨레 (Donnez moi un, s' il vous plaît)

- 000를 찾는 데 절 도와주실 수 있나요?
- 부 뿌베 메대 아 세르세 ~~ (Vous pouvez m' aider à cherch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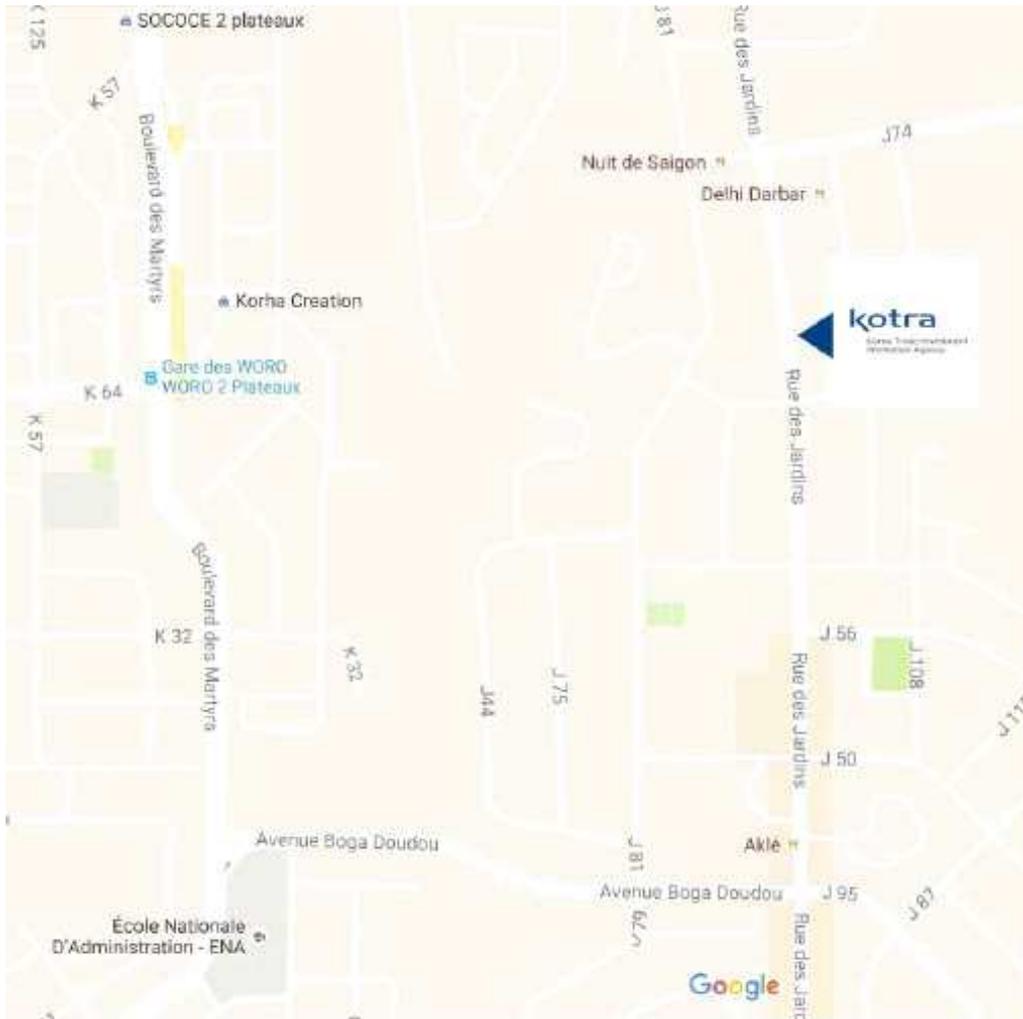
- 정말 감사합니다
- 메르씨 보꾸 (Merci beaucoup)

- 다음에 봐요
- 오 르부아 (Au revoir)



VI. 아비장 무역관 안내

1. 약도 및 연락처



- 주소: Immeuble NSIA, 2ème étage, Rue des Jardins, Deux Plateaux, Cocody, Abidjan, Côte d' Ivoire
- 전화 : +225-2251-4715, 2251-4717
- 팩스 : +225-2251-4719



2. 무역관 찾아오시는 길

- 코트디부아르의 주소 체계는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서함 주소만이 존재하며,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실제 주소는 존재하지 않음. 사무실이나 거주지의 위치는 주변의 저명한 지명지물과 도로명을 이용하여 설명해야 함.
- 아비장 무역관의 경우 “Immeuble NSIA, Rue des Jardins, 2 Plateaux” 를 찾아오시면 되며 현지어 발음으로 “임피블르 엔시아, 뤼 데 자르댕, 듀 뵈라또” 라고 발음. (렌터카, 또는 택시 기사에게 설명 필요)

3. 직원 연락처

성명 / 직위	업무	전화
신정수 관장	무역관 업무 총괄	+225-2251-4715
장혜진 대리	조사 담당	+225-2251-5117
Oulai Halvares	지사화 담당	+225-2251-4717
Tape Julien	마케팅 담당	+225-2251-4718



www.kotra.or.kr